

전대사대부고 배드민턴 복식 이용대배 우승

노진성·조송현조, 전주생명과학고 완파... 노진성은 국가대표 발탁도

전대사대부고가 올해 마지막 대회인 '2021 화순 이용대배 전국 학교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복식 정상에 올랐다.

전대사대부고 노진성(3년)·조송현(2년)조는 15일 화순 하니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이 대회 복식 결승전에서 김태림, 유준서(전주생명과학고)를 2-0(21-17, 21-13)으로 꺾고 우승했다.

노진성·조송현조는 시종 여유있는 플레이로 승기를 잡은 뒤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양정모 지도자는 "워낙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라 경기전 별다른 주문을 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마지막 대회 우승이라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전대사대부고 배드민턴팀은 올해 최고의 해를 보냈다.

노진성은 지난 7월 제64회 전국 여름철 중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노진성은 이 대회 남자고등부 복식 결승에서 안운성(3년)과 함께 출전해 인천해양과학고 조문희-장준희 조를 세트스코어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노

진성은 김예리(광주체고 2년)와 호흡을 맞춘 혼합복식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노진성-안운성조는 지난 10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노진성은 2022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복식 평가 결과 54.71점으로 9위를 차지해 대극마크를 달았다.

양정모 지도자는 "올해 코로나 사태와 전국체육관 공사로 인해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선수들의 투혼, 학교측의 지원으로 좋은 결과를 일궈냈다"고 말했다.

한편, '2021 화순 이용대배 전국 학교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의 2008년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제패를 기념하는 대회다. 이용대의 고향 화순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45개팀(남자 25개, 여자 20개), 중학부 62개팀(남자 36개, 여자 26개)의 총 719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대사대부고 노진성(왼쪽)과 조송현

<전대사대부고 제공>

핸드볼 코리아리그 3주차 일정도 취소

코로나로 2주 연속 경기 못해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일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2주 연속 취소됐다.

대한핸드볼협회는 "17일과 19일 충북 청주의 SK호크스아레나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남자부 경기를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는 참가 팀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라고 15일 발표했다.

국내 남녀 실업리그인 SK핸드볼 코리아리그는 지난주 10일과 12일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던 2주차 일정도 취소한 바 있다.

10일 남자부 인천도시공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남자부 6개 구단 선수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가 나와 12일 경기도 열리지 못했다.

원래 이번 주 3주차 청주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2주 연속 경기 개최를 보류했다. 4주차 경기는 24일과 26일 역시 충북 청주의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커리 "이젠 내가 전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앞줄 왼쪽)가 15일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뉴욕 닉스와 2021-2022 NBA 경기에서 3점 슛을 성공시킨 뒤 포효하고 있다. 커리는 통산 2977개의 3점 슛을 기록하며 NBA의 새 역사를 썼다. /연합뉴스

3점 슛 통산 2977개...앨런 기록 2973개 뛰어넘으며 NBA 새 역사

스테픈 커리(33·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미국프로농구(NBA) 역대 최고의 '3점 슛 제왕'으로 우뚝 섰다.

커리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뉴욕 닉스와 2021-2022 NBA 정규리그 17경기 1쿼터에 3점 슛 2개를 넣으며 개인 통산 2974번째 3점 슛을 기록했다.

1996~2014년 활약한 레이 앨런의 2973개를 앞질러 NBA 역대 최다 3점 슛 단독 1위로 올라선 것이다.

2009년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7순위로 골든스테이트에 지명돼 데뷔한 커리는 13번째 시

즌, 789번째 경기에서 대기록을 작성했다.

앨런이 18시즌 동안 1300경기를 뛰며 2973개를 넣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3점 슛을 적립했다. 성공률은 43.1%다.

커리는 데뷔 시즌 166개를 넣었고, 2012-2013 시즌부터는 7시즌 연속 200개 넘는 3점 슛을 넣었다. 한 시즌에 가장 많이 넣은 건 2015-2016시즌의 402개다.

이번 시즌엔 27경기에서 145개를 폭발했다.

이날 1쿼터 2개를 포함해 총 5개의 3점 슛을 넣어 NBA 역대 1위 기록을 2977개로 늘린 커리는 전인미답의 통산 3점 슛 3000개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스티브 커 감독에게서 기록을 달성한 공을 건네 받고 포용한 커리는 NBA 선수 출신인 아버지 텔 커리에게 공을 전달하며 기쁨을 나눴고, 동료들에게서도 축하를 받았다.

앨런도 경기장을 찾아 자신을 넘어선 후배를 아주며 격려했다.

경기를 마치고 방송 인터뷰 중 '2794'가 새겨진 유니폼을 받은 커리는 "이 숫자를 오래 생각해왔다. 신발에도 적어놨다"며 "농구의 역사다. 무척 특별하다"고 감격했다.

그는 "두 전설(앨런-미러)을 보고 자라며 그들과 아버지 덕분에 슛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면서 "난 복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즈, 대회 안 뛰어도 '선수 인기도 보상' 혜택

PGA 인기도 따라 상금 지급키로 1위 800만불...10위도 300만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선수 인기도 보상 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선수 인기도 보상제'는 선수의 인기에 따라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사우디아라비아 자금융으로 출범하는 이른바 슈퍼골프리그(SGL)에 인기 선수를 뺏기지 않으려는 PGA투어의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다.

PGA투어는 4000만 달러의 돈을 선수 인기도 10위 선수에게 순위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위 상금이 무려 800만 달러다. 2위는 600만 달러, 3~6위는 350만 달러를 받는다. 7~10위한테는 300만 달러를 준다.

10위만 해도 메이저대회 우승 상금보다 많은 돈을 받는 셈이다.

선수 인기도 측정은 5가지 기준에 따른다. 맨 먼저 선수 이름 구글 검색량이다. 두 번째는 언론에

서 얼마나 선수 이름을 많이 다뤘는지를 측정한 언론 보도량이다. 세 번째는 선수의 소셜 미디어다. 소셜 미디어 팔로잉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네 번째는 TV 중계방송 노출량이고 다섯 번째는 수십 년 동안 홍보 마케팅 전문 기업이 활용하는 Q 스코어 점수다. Q 스코어는 친밀도와 호감도를 측정해 점수화한 것이다. 성격이 좋아야 구글이나 언론, TV 중계에서 많이,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가 유리한 구조다.

최근 5년 동안 1년에 5개 대회 이상 출전한 선수는 보너스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앞으로 한 번도 PGA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도 2024년까지 '선수 인기도 보상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필 미컬슨(미국) 역시 앞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도 5년 동안 인기만 살아있다면, 해마다 거액을 챙긴다.

PGA투어 '선수 인기도 보상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측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쿠드롱, 프로당구 PBA 첫 3회 우승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엘저저 축은행)이 프로당구(PBA) 최초로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쿠드롱은 14일 밤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승센터에서 열린 '크라운해드 PBA-LPBA 챔피언십' PBA 결승전에서 다비드 사파타(스페인·블루원리조트)를 세트 스코어 4-1(15-4 15-5 3-15 15-11 15-13)로 꺾고 상금 1억원과 우승포인트 10만점을 손에 넣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쿠드롱은 2019-2020시즌 '3전 4기'만에 'TS삼푸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다.

2020-2021시즌 'TS삼푸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라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그로부터 1년 2개월 만에 세 번째 정상에 등극했다.

쿠드롱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강동궁, 다비드 마르티네스(이상 2회)를 제치고 PBA에서 가장 먼저 3회 우승을 달성한 주인공이 됐다.

이번 대회에서 쿠드롱은 128강에서 강성호에 3-1 승리를 시작으로 선지훈과 서성원 역시 나란히



우승을 확정지은 후 기뻐하는 쿠드롱

/연합뉴스

3-1로 꺾고 16강에 진출했다. 16강에선 '질전' 에디 레랜스, 8강과 4강에선 카를로스 앙기타와 강동궁을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쿠드롱은 "우승까지 정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했다. 너무 행복하다"며 "가능한 한 많이 우승하는 것이 좋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이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3관 연애 빠진 로맨스
- 4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6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연애 빠진 로맨스
- 9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라리와 크리스마스요정
- 7관 씨네케를 유제이탈자
- 8관 씨네케를 엔칸토: 마법의 세계, 돈 룩 업, 팬텀: 더 뮤지컬 라이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21 ACC 송년음악회
 일시 : 2021.12.24.(금)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 062-524-5086

GAC기화공연 포커스
 어린이 무용 <루돌프>
 일시 : 2021.12.19.(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